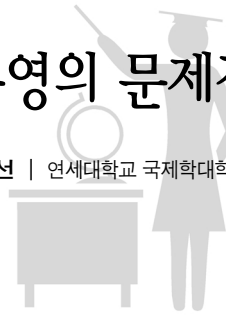


## 전문대학원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이 영 선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



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분야의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교육내용도 일반학술대학원이 학술이론과 연구방법론을 주로 포함하는 것과는 달리 실천적 이론과 실무위주의 교육을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 I. 전문대학원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전문대학원을 “전문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일반대학원은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의 계속교육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대학원의 목적규정은 전문대학원이 다른 대학원들과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 준다.

우선 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분야의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교육내용도 일반학술대학원이 학술이론과 연구방법론을 주로 포함하는 것과는 달리 실천적 이론과 실무위주의 교육을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전문대학원이 수여하는 학위는 학술학위가 아니라 전

문학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학술학위도 수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학위과정에 있어서는 특수대학원이 석사학위만을 수여할 수 있는 데 비해 박사학위까지 수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대학원의 교육내용과 수여학위의 차이는 전문대학원이 일반대학원과 구별되어 질 뿐 아니라 특수대학원과의 구별되어짐을 의미한다. 즉 야간에, 혹은 계절제로 운영함으로써 파트 타임 학생을 위주로 직업인의 계속교육을 담당하는 특수대학원보다는 더 심도 있는 이론 및 실천적 학문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대학원은 주간에 교육하며 풀타임 학생의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특수대학원은 학부의 교수와 시설을 야간 혹은 방학 기간 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학부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전문대학원은 주간에 전임교원들을 활용하여 풀타임 학생들을 교육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문대학원은 산하에 학부를 둘 수 없는 것이 일반대학원과 다른 점이다.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학부와 연계하여 시설과 전임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데 비해 전문대학원은 별도의 시설과 전임교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전문대학원의 설립을 크게 어렵게 하고 있다. 아직 전문대학원체제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도 있겠으나 2002년 4월을 기준으로 할 때 특수대학원은 전국에 708개가 있는 반면에 전문 대학원은 99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이러한 대학원 체계는 크게 보아 미국대학의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미국의 종합대학은 일반적으로 문리대학(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과 공과대학(School of Engineering)으로 학부를 이루고, 이 학부와 연계하여 일반대학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과는 별개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Professional School)이 포함되어 전체 종합대학교의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원 시스템과 구별되는 점은 우선 미국에는 특수대학원이라는 체제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대학원이든 전문대학원이든 학교의 여건에 따라 주간과 야간을 구별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

다. 직업인으로써 학위를 취득하기를 원한다면 전문대학원에 파트 타임으로 등록하여 풀타임 학생보다 더 많은 학기를 공부하여 학위를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면 된다. 미국의 대학원 제도가 우리와 크게 다른 점은 일반대학원 혹은 학술대학원이 전문직업인의 양성과 관련된 학문들은 일반적으로 포함하

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법학, 의학, 경영학, 행정학, 예술 및 디자인 등은 독립된 전문대학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학술연구에 주력하는 일반대학원은 주로 풀타임 학생들이 등록을 하고, 전문대학원에는 여건에 따라 파트 타임학생들도 등록을 하며 따라서 야간에 수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오늘날 전문대학원이 본래의 목적대로 전문직업 인력을 양성하는 데 성공적이라 하기는 어렵다. 우선 설립된 전문대학원 수도 별로 많지 않고, 그 교육의 질도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다. 전문대학원이 수적으로 충분히 설립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대학의 체제가 아직 기초 학술 교육과 전문직업교육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II. 전문대학원이 지닌 문제점들

오늘날 전문대학원이 본래의 목적대로 전문직업 인력을 양성하는 데 성공적이라 하기는 어렵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선 설립된 전문대학원 수도 별로 많지 않고, 그 교육의 질도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전문대학원이 수적으로 충분히 설립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대학의 체제가 아직 기초 학술 교육과 전문직업교육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법, 경영, 의학, 사회복지, 교육, 행정, 신문방송 등을 전문직업교육의 범주에 놓고 이들을 전문대학원에서 교육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거의 모든 대학이 학부과정에 포함하여 교육하고 있다. 물론 법학과 의학은 국가의 사법교육제도와 의학교육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전문대학원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다. 즉 오늘날과 같이 사법시험으로 법률가를 선발한다면 법률전문대학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또 의예과 2년 후 본과로 진학하는 의학교육제도가 있는 한 의학전문대학원도 발전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왜 이들 분야들이 구태여 전문대학원에서 교육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 이 분야들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지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4년제 대학을 마침으로써 일반교양인 혹은 시민으로의 소양을 갖춘 후에 전문 직업교육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사법시험을 위해 학원에서만 공부하고 사법시험에 통과할 경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상식을 지닌 법조인, 또는 여러 방면의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법조인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의학 교육에 있어서도 대학 4년 간의 다양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의학전문대학에 진학시켜 의학을 교육할 경우 복잡다기한 오늘의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전문인을 양성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된 분야 모두를 꼭 전문대학원에 편입하여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 중에는 필요에 따라 학부과정에서도 교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별 대학의 여건에 따라 전문대학원이 아닌 일반대학원

에 편성하여 교육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학부나 일반대학원, 혹은 특수대학원 쪽으로 이들 분야가 편성되는 것이 제도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문대학원은 학부과정을 둘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또 주간에만 강의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본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문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교육하기보다는 학부 과정에 경영학을 두고, 같은 전임교수단과 설비를 가지고 일반대학원도 운영하고, 또 야간에는 특수 대학원도 운영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훨씬 유리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주와 유럽에서 널리 발전되고 있는 경영전문대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서는 발전되고 있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제도적 모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분야에서 진정으로 실천적 이론과 전문실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원도 학부과정을 둘 수 있게 하며, 또 필요에 따라서는 야간에 특수대학원 과정도 병설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 한 학생들이 전문대학원을 세우고 전임교원과 설비를 확충할 아무런 유인을 갖지 못한다.

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데는 비교적 많은 재정적 자원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은 일반대학원보다 크게 높으며, 장학금도 거의 지급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 대학원에서 순수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졸업 후에 자신의 영달을 위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없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여도가 높아(경제학 용어로 외부 경제성이 높다고 함) 등록금도 저렴할 뿐 아니라 많은 장학금 수여의 기회도 부여되고 있다. 이에 비해 전문대학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은 미

래에 높은 소득이 보장될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해 미리 학자금을 대부 받아 학교에 납부하고 졸업 후에 상환하는 길이 널리 열려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의 학자금대여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며, 또 등록금도 그다지 높지 않다. 따라서 전문대학원이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 수입으로는 학교 운영이 수월치 않을 것이

다. 그런데 사실 학교가 미래에 높은 소득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른 재원을 동원하여 전문직업교육을 수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전문대학원이 재정적으로 수월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높게 책정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학생들은 이 높은 등록금

을 금융기관에서 대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원 교육이 지닌 또 다른 문제점은 전문대학원이 표방하고 있는 실천적 이론과 실무위주의 교육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다른 대학원 교육과정과 구별되는 특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대부분의 전문대학원이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교수채용에 있어서 유연성을 지니지 못해,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직업인을 쉽사리 교수요원으로 초빙하지 못하고 있다. 교수들이 때에 따라 실무 영역에 진

출하여 경험을 쌓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교수요원 운용상의 유연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교육 커리큘럼에서도 실무영역이 강조되어야 하며, 교수의 평가제도에 있어서도 단순한 연구업적에 의거한 평가보다는 교육측면 또는 실무와의 연계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문대학원의 졸업장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인력의 수요자의 측면에서 볼 때 대학원 졸업생들이 충분히 적절한 실무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평가받기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경영대학원 졸업자가 MBA학위의 소유자로 인정받고 이에 상응하는 직책과 보수 상의 대우

를 받게 되어야 전문대학원의 교육이 인정받는 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진의 자질 향상과 실무교육을 위주로 한 교과과정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의식구조도 우리의 전문대학원의 발전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되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학원 교육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않으며 일종의 파트 타임 정도의 공부로 대학원 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군대입영을 연기하기 위해 입학한다든지 취업하기 전에 잠시 적을 둔다는 식의 인식으로 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

**전문대학원의  
발전 방향을 논함에 있어  
우선 명백히 해야 할 것은  
전문대학원 발전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전문대학원의 존재이유인  
전문직업인의 효과적인 양성이  
기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며,  
전문직업인이 어떠한 학제 속에서  
가장 유효하게 양성될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해서는 학교가 보다 충실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또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등록금 수준이 충분히 높아 불성실한 학생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해야 할 것이다.

### Ⅲ. 개선방향


전문대학원의 발전 방향을 논함에 있어 우선 명백히 해야 할 것은 전문대학원 발전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전문대학원의 존재이유인 전문직업인의 효과적인 양성이 기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며, 전문직업인이 어떠한 학제 속에서 가장 유효하게 양성될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해 분명한 것은 일반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의 형태로는 전문직업인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의 고등교육법이 전문대학원의 설립을 규정해 놓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의 문제점에서 지적된 바대로 전문대학원이 지니고 있는 제도상의 불리점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전문대학원이 학부나 특수대학원과 연계하여 전임교원과 설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만일 학제적 독립을 강제해야 한다면 등록금을 대폭 올릴 수 있게 하고, 학자금 대부도 보다 용이하게 해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원의 교수는 보다 실무적 경험을 중시하며, 교육도 실무 중심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겸임교수제를 보다 확대 실시하고, 교수의 평가도 연구업적과 병행하여 교육평가도 중시해야 한다.

전문대학원 수료자들이 전문 학위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대학원이 수여하는 학위를 구별하여 전문직업교육을 받았음을 분명히 보일 필요가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전문 대학원의 필요성이 깊이 인식되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법학, 의학, 경영학 등과 같이 전문직업인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실무적으로 이론화하여 교육할 뿐 아니라 실무상의 경험을 중시하는 전문직업교육체제가 구축되어야 오늘과 같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이영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메릴랜드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국제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을 지냈으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기획실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주주의와 경제정책”, “경제계획론” 외 다수가 있다.